

태고 보우 스님 창건...임제선 사상의 고향

태고암가(太古庵歌)의 산실 태고사

삼각산 등산코스 가운데 어려운 하나가 산성코스이다. 의상암을 지나 문수봉과 보현봉 사이의 대남문, 북쪽으로 백운대 협곡, 원효봉을 지나가는 길이다. 봉우리가 높아 길이 험하고 그 길을 따라 성곽이 쌓여있다. 바로 북한산성이다.

돌로 쌓은 산성은 조선 숙종 때이지만 흙으로 쌓은 토성은 백제시대부터 있었다. 숙종 36년(1710) 12월 판부사 이이명 등이 북한산을 살펴보고 돌아와 축성의 일을 의논하면서 중흥사(重興寺)에 백제의 궁터가 있는데 창고를 지을 만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 일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는 이 성을 통해 수도인 위례성을 지켰고, 고구려의 남진을 막았다. 북진정책의 전진기지였다. 이곳을 삼국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곳이었다. 장수왕 때 이곳을 빼긴 백제는 수도를 공주로 옮길 정도로 치명타를 입었다. 신라의 진흥왕이 100년간 지속된 나제동맹을 깨고 이곳을 점령한 것도 너무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북한산성을 비롯해 한강 유역을 차지한 진흥왕은 산성 인근 비봉에 순수비를 세웠다. 그 후에도 신라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진평왕 25년(603) 8월 고구려 장군 고승(高勝)이 북한산성을 포위하자 진평왕 자신이 1만 군사를 이끌고 이곳을 지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삼국통일을 이룬 태조무열왕도 재위 8년(661) 고구려와 이곳에서 혈전을 벌였다. 이 무렵 신라는 백제 부흥군과 대치하고 고구려와 전쟁 중이어서 삼국통일의 갈림길이었다. 성주 동타천(冬陀川)은 필사적으로 이 성을 방어한 공로를 인정받아 벼슬이 2단계 승급됐다.

고려시대에도 북한산성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됐다. 현종 1년(1010) 거란이 침입했을 때 이곳으로 태조의 재궁(粹宮)을 옮겨오기 했고, 고종 19년(1232)에는 몽고군을 맞아 이곳에서 격전을 벌였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북한산성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선조 29년(1596) 3월 임진왜란이 잠시 소강상태에 빠지자 병조판서 이덕형은 이곳을 둘러보고 주위의 형세를 그려 선조에게 올렸다. 그가 살펴본 북한산성은 사면의 산세가 높고 험절해 진실로 10여 인이 지키게 되면 적의 숫자가 수만 명이 되어 어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도성 근처에 이와 같이 유리한 지세를 두고 방치한 것을 매우 애석해했다. 선조는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했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성이 축성된 것은 숙종 37년(1711)이다. 서울 백성들과 삼군문(三軍門)의 군사들이 6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완성했다. 이렇게 애써 축성했지만 실제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한일합방 뒤 북한산성의 전략적 가치를 알아차린 일제는 헌병대를 주둔시켰다.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북한산성 내에 있었던 사찰이 중흥사였다. 고려 초 창건돼 근대까지 존재했다. 조선 초 이곳은 왕실의 중요한 사찰이었다. 태조

북한산성 중흥사터 위쪽에 위치
보우, 증도가 본떠 '태고 암가' 지은 곳
총본사 현 조계사에 절이름 내주기도
6·25때 소실 1968년 복원



보우 스님 부도탑 '보월 승공'



보우 스님이 창건, '태고 암가'를 지은 중흥사 동암. 이 노래를 지은 후 스님은 자신을 '태고'라 불렀고, 스님 원적 후 후학들이 태고암이라했다. 1968년 복원된 태고사

는 7년(1398) 1월 도당에 명하여 중흥사 토지에 대한 조세를 면제했다. 그리고 태종 11년(1411) 5월에는 스님들을 이곳으로 불러 금주하고 비가 내리기를 기원했던 것으로 보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중흥사는 산성 안에 있었던 관계로 전쟁 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에는 이곳 주지가 승군대장을 겸해 전국의 승군을 총지휘하는 지휘소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런 중흥사였지만 숙종 37년 북한산성을 축성할 때는 사세가 기울어 30여 칸만 존속하였고, 축성과 정에서 행궁터로 지목됐다. 숙종 38년(1712) 11월 병조 판서 조태제(趙泰采)가 "북한산성의 행궁 자리는 중흥사 옛터만 못하니, 행궁을 다시 이곳에 옮기어 세우도록 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아뢰었다. 그래서인지 숙종 41년(1715) 136칸의 큰 절로 만들고, 팔도도총섭 겸 승대장 휘하의 승영이 설치됐다.

이처럼 산성 내 중요한 위치인 중흥사였지만 화를 비켜가지 못했다. 1909년에 화재를 입었고, 1915년 대흥수로 남은 전각들이 유실됐다. 1916년에는 그마저 모두 불타 없어지고 한 채만 남아 헌병출장소로 사용됐다.

중흥사 터에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암자 하나

가 있다. 태고사이다. 태고보우(太古普愚)가 이곳에 머물며 수행했다고 해서 태고사로 불린다. 중흥사 사적이 왕성했을 때 이곳은 동암(東庵)이라 불렀다.

1301년 흥주에서 태어나 13세에 출가해 회암사 광지(廣智)의 제자가 된 보우가 이곳에 온 것은 충혜왕 복위 2년(1341)이다. 삼각산 중흥사 주지 소임을 맡아 이곳에 온 그는 동쪽 언덕에 암자를 짓고 자신의 수도처로 삼았다. 이곳에서 5년을 지내는 동안에 중국 영가 대사의 <증도가>를 본떠서 장문의 '태고 암가(太古庵歌)'를 지었다. 82구로 구성된 태고암가는 내용이 절절하고 정서가 깊다. 이 노래를 지은 다음 스스로 자신을 태고라 불렀다. 그가 죽자 후학들은 이곳을 태고암이라 불렀다.

태고암에서 깨달음을 얻은 보우는 자신의 견해를 확인하고 싶었다. 1346년(충목왕 2) 원나라로 건너간 그는 연경 대관사(大觀寺)에 머물면서 궁중에 들어가 <반야경>을 강설하며 중국 고승과의 만남을 기대했다. 1347년 7월 호주 천호암(天湖庵)으로 가서 선승 석옥(石屋)을 만나 도를 인정받았다. 40여 일 동안 석옥의 곁에서 임제선을 탐구하던 그가 떠나려 하자 석옥은 '태고암가'의 발문을 쓰면서 이 노래는 득도의 경지라고 평했다. 그리고 깨달음의 신표로 가사를 주면서, "이 가사는 오늘의 것이지만 범은 영축산에서 흘러나와 지금에 이른 것이다. 그것을 그

대에게 전하노니 잘 보호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당부했다. 석옥은 일제의 18손으로 그에게 사사한 까닭에 보우는 한국 선종의 법통에서 임제선을 계승한 중흥조로 평가받는다.

1348년에 귀국한 보우는 다시 중흥사에 머물렀다. 도를 더욱 깊이 하고자 미원의 소설산(小雪山)으로 들어가 4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보임했다. 1356년 왕의 청으로 봉은사에서 설법했고, 그 해 4월 왕사로 책봉돼 광명사에 머물렀다.

1363년에 신돈(辛旽)이 공민왕의 총애를 받아 불법을 해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므로, 보우는 "나라가 다스려지려면 진승(眞僧)이 그 뜻을 얻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사승(邪僧)이 때를 만납니다. 왕께서 살피시고 그를 멀리하시면 국가의 큰 다행이겠습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신돈의 횡포가 더욱 심해지자 보우는 왕사의 인장을 반납하고 전주 보광사로 내려갔다.

우왕 7년(1381) 겨울 양산사(陽山寺)로 옮기던 날 우왕은 그를 국사로 봉하였다. 자신의 입적이 압박함을 느낀 그는 1382년 다시 소설산으로 돌아왔다. 그해 12월 23일 후학들을 불러 내일 유시(酉時)에 떠날 것을 말하고, 이튿날 새벽 유시에 단정히 앉아 입적했다. 시호는 원증(圓證)이다. 중흥사 동쪽 봉우리에 탑을 세워 탑호를 보월승공(寶月昇空)이라 했다.

다. 사리는 양산사 사나사 청송사 태고암에 분장했다. 태고사 대웅전 우측에 있는 원증국사 보우의 부도탑비는 우왕 11년(1385) 건립됐다. 비문은 이색(李穡)이 교지를 받들어 짓고, 글은 권주(權鑄)가 썼다.

그 뒤 수차례 중수를 거쳐 명맥을 이어온 태고사는 총본산이 설립되면서 사명(寺名)이 옮겨지게 됐다. 1937년 7월 시작된 총본사 건립이 1938년 11월에 준공되자 1940년 4월 북한산에 있는 태고사 사명을 옮겨온 것이다. 그리고 11월 31분사 주지들이 모여서 조선불교선교양종으로 사용하던 중명을 조선불교 조계종으로 개정하고 태고보우를 중조로 세웠다. 지금 조계사로 불리는 것은 정화과정에서 바뀐 이름이다.

사명이 총본산으로 옮겨진 삼각산 태고사는 6·25 때 완전히 부서져서 절터만 남았다. 그 후 1968년 옛 중흥사의 석재를 이용하여 대웅전과 요사채를 복구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비록 보기엔 초라하지만 한국불교의 사상적 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찰임을 생각할 때 길보기와 달리 그 의미가 깊다. <끝>



김경집/전각대 교수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ikukak.com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 과정

- (1) 초·중급과정
 -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육바라, 천수바라
 -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계
 - ◆ 49재, 천도의식
-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 사다리나바라, 화의재바라,
 - ◆ 신중작법, 육권이
 -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계작법
 - ◆ 가지계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총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 강주스님 : 교무국장 성우

- ◆ 교육시간 : 초·중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 개강일시 : 2012년 3월 중 (수시모집가능)
-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 연 락 처 : 054)975-4339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총무원